빌딩에 '자연'을 입힌다

옥상·외벽 등 식물로 덮어 에너지 절감
전남대 치과병원 '옥상 정원' 조성 계획
'녹색옥상연대' 조례 제정 운동 벌이기로

'건물 녹화 운동' 활기

고유가·고물가 시대를 맞아 도심 속 건물 옥상과 외벽을 식물로 덮는 '건물녹화운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건물녹화는 건물 자체를 아름답게 하고 건물 안팎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진다.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지방최대 치과병원인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은 건물 5층과 10층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공공건물의 건물 녹화로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꼽힌다.

건물 외벽을 담쟁이덩굴 등으로 덮는 외벽 녹화 역시 건물 내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현재 광주 중앙여고와 북구청 등도 건물 외벽에 담쟁이덩굴을 덮어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건물 녹화는 여름철 기온 하락효과 뿐 아니라 겨울철 보온 효과로 인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또 산성비를 막아줘 건물을 보호하고,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긴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지난해 여름 옥상정원을 모니터링한 결과, 옥상정원의 표면 평균 온도는 30.3도였고, 정원이 없는 건물 표면은 39.6도로 조사됐다. 또 옥상 정원 바로 아래층 실내 평균 온도는 26.7도로, 정원이 없는 건물 27.4도에 비해 낮았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의 민간단체가 '건물 녹화' 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녹색옥상연대(공동대표 김강렬·남부원)는 오는 15일 오후 7시 광주 YMCA 옥상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옥상 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녹색옥상연대는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최근 장마철임에도 비가 오지 않고,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결국 인간이 저지른 재앙"이라며 "옥상 녹화사업을 통해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고, 온난화방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강렬 녹색옥상연대 공동대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킨 주범은 '인간'"이라며 "광주시민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옥상 녹화사업에 참여해 온난화 방지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재 건물 외벽 녹화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조만간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현주 기자 a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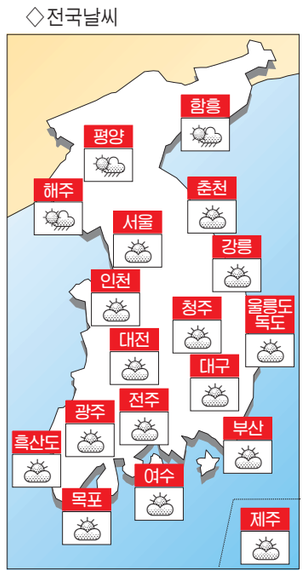
더위는 계속된다

7월 11일 (음 6월 9일) 날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겠다.

광 주	구름 많음	24~31℃
목 포	구름 많음	23~28℃
여 수	구름 많음	23~27℃
완 도	구름 많음	22~30℃
구 례	구름 많음	24~33℃
해 남	구름 많음	22~30℃
장 흥	구름 많음	22~31℃
고 흥	구름 많음	22~30℃
순 천	구름 많음	23~32℃
영 광	구름 많음	24~29℃
진 도	구름 많음	22~30℃
전 주	구름 많음	23~30℃
남 원	구름 많음	22~30℃
흑산도	구름 많음	20~25℃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 07:51 20:53 썰물 01:02 13:31
여 수 밀물 02:20 15:52 썰물 08:52 21:53

▲해뜸 05:27 ▲해짐 19:49 ▲달뜸 13:49 ▲달짐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날 씨						
최저/최고	23/29	23/31	23/32	23/32	24/30	23/31

"조선대 정상화 8월 내 결론"

사학분쟁조정위

조선대 정상화가 8월 중에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로부터 '늦어도 8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도 7월이 끝나기 전 임시회의가 아닌 형태의 모임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대 정이사 체제 전환을 다루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7일 임시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 23일께 위원들끼리 워크숍을 갖기로 해 결론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선대 측은 내부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속한 결의를 끌어내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을 더 확실하게 압박하기 위해 강경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집회를 위해 상경했던 조선대 구성원들은 세종대나 상지대 구성원들과 달리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이 회의 중인 사무실 바로 앞까지 들어가 이를 막는 교과부 파견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조선대는 17일 사학분쟁조정위 임시회의에 앞선 오는 14일 학·처장, 팀장, 학과장 등이 모여 조속한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이대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효성 등을 따졌을 때 어떤 식의 대응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

"추석 열차표 꼭 사야지" 추석 연휴(9월12~16일)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0일 오전 광주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차권 예매 문의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로 하면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구온난화, 생태계 교란 현상 심각

함평만 산림 줄고 초지 늘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나무의 이상 생장과 양서류 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국내 생태계의 교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평만의 경우 온도 상승으로 산림지역은 감소했지만 초지가 확장되는 등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가장기생태연구 2007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한 충주시 월악산의 경우 이곳에 사는 이끼도롱뇽, 무당개구리 등 양서류 10종의 종 다양성 지수가 1.84에서 1.46으로 감소했다.

특히 조사대상 소나무 가운데 이상 생장률도 크게 높아져 광주는 38%에서 69%로 곡성도 0%에서 30%로 각각 상승했다.

도심지역에서는 열섬현상 등으로 벚나무의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도심의 벚나무 개화 시기는 광주보다도 불과 이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상승은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 사는 특유한 식물의 집단인 식생(植生)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만의 경우 지난 10년간 산림지역이 감소하고 갯잔디, 퉁퉁마디, 칠면초 등 다년생 염생식물로 이뤄진 초지가 확대되는 등 생태계 변화에도 장기적인 온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경제난에 올 휴가 4.9%P 줄 듯

올해 휴가 출발은 8월 3~9일 가장 많이 몰리고 특히 동해안으로 가는 영동선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4천300세대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결과 34.5%가 올해 휴가 계획이 있으며 8월 3~9일 출발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32.6%는 7월 27일~8월2일 출발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8월 10~16일 출발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12.8%로 조사됐다.

휴가 여행 예정 지역은 동해안이 27.1%로 가장 많았고 영남·호남 내륙 17.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세대 비율은 지난해보다 4.9%p 감소해 최근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총장 당선자 논문 중복 게재 전남대 '시끌'

조사위 주중 구성키로

전남대가 김윤수 차기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교내 구성원 간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전남대 내부 통신망에는 경영대 J교수가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논란에 따른 우려와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다. J씨는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평가를 구분한 2단계 과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1단계 조사와 조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연구윤리 평가를 구성원(교수)에게 직접 묻는 2단계 평가라고 덧붙였다.

Y교수는 "논문이 중복게재됐다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모략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무고한 사람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L교수는 "(논문 중복게재는) 총장의 역할과 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중복게재에 대한 우리의 윤리기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썼다.

논의가 진행되자 강정채 총장은 지난 9일 저녁 내부 통신망 메일을 통해 '당선자의 연구윤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강 총장은 메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소상히 밝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성원 여러분의 신뢰와 인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조사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윤수 전남대 총장 당선자가 1990~2007년 사이에 발행한 논문 13편이 국내·외 학술지에 중복게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즉석 냉면'서 애벌레

유명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즉석 냉면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됐다.

지난 7일 오전 화순군에 살고 있는 H(여·32)씨는 농심의 'D냉면' 봉지 2개에서 1㎝가량의 애벌레 1마리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H씨는 제조사인 농심측에 신고했으며, 농심측은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 제품은 지난 2일 H씨가 화순군 화순읍 모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4봉지 중 2봉지에서 애벌레가 나왔다.

농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벌레가 생존할 수는 없다"며 "결과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품 회수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